

광주FC, 홈 개막전서 인천 제압...이정규호 '첫 승'

광주월드컵서 3-2 승리...신창무 데뷔 첫 멀티골 김경민 선방 등 빛나...1승 1무 승점 4 '리그 2위'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홈 개막전에서 첫 승리를 달성했다. 이정규 감독 부임 이후 2경기만의 축복이다. 이정규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에서 3-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광주는 1승 1무 승점 4를 기록, 리그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앞서 제주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이정규 감독은 이날 첫 승리 맞았다.

이날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박정인과 최경록이 최전방에 이음을 올렸다. 중원은 주세종, 문민서, 유제호, 신창무를 배치했고 후반은 하승운, 민상기, 안영규, 김진호가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광주는 전반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다. 전반 4분 민상기가 드리블 도중 허벅지를 붙잡고 쓰러졌고, 공배현이 대신 투입됐다.

전반 19분에는 실점 위기를 넘겼다. 상대 제르소가 단독 돌파 후 때린 슈팅이 골포스트 옆으로 지나갔다.

전반 22분 상대 무고사가 날린 슈팅은 골대 위쪽을 맞고 빙겨나갔다.

선취골은 광주의 차지였다. 전반 37분 주세종이 넘긴 패스가 페널티박스 인근에 있는 최경록에게

향했다. 이어 최경록이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상대 골망을 갈랐다.

전반 추가시간에는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 진영 인근에서 경합이 벌어졌고, 공을 잡은 상대 오후성이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전반전은 결국 1-1로 끝이 났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추가골을 터트렸다.

후반 5분 상대 페널티박스 인근에서 박정인과 상대 정치인이 충돌했다. 정치인이 공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박정인의 무릎을 직격했고, 심판은 곧바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곧이어 진행된 비디오 판독에서도 결과는 뒤바뀌지 않으면서, 결국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후 키커로 나선 신창무가 왼발 슈팅으로 골망 구석을 정확히 찌르면서 경기는 2-1이 됐다.

광주는 후반 19분 주세종과 박정인 대신 권승운과 프리드윈슨을 투입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후반 24분 신창무의 크로스를 받은 프리드윈슨이 헤더를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다.

2분 뒤에는 광주의 쐐기골이 터졌다. 상대 진영에서 하승운의 크로스를 신창무가 발리슛으로 연결했다. 공은 왼쪽 구석으로 향하면서 신창무의 데뷔 첫 멀티골이 완성됐다.

후반 37분에는 상대의 패스가 광주 진영 깊숙이 들어왔다. 이후 만들어진 1차 전에서 상대 무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에서 3-2로 승리한 광주FC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고사의 슈팅을 김경민이 선방해냈다. 광주는 후반 41분 하승운과 문민서 대신 안혁주와 강희수를 투입하며 굳히기에 나섰다. 상대는 후반 42분 무고사가 회심의 슈팅으로 추격골을 노렸으나, 골대를 맞고 나가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추가시간은 11분이 주어졌다. 추가시간 7분 광주 진영 인근에서 경합이 벌어진 뒤 상대 세제민이 추가골을 터트렸다. 이어 상대가 연달아

날린 슈팅을 김경민이 막아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주어진 페널티킥에서는 다시 한번 김경민의 선방이 빛났다. 상대 무고사의 슈팅을 김경민이 체내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정규 감독은 “저의 첫 승리보다는 팀이 첫 승리를 달성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날씨도 많이 안 좋았는데 홈팬들이 많이 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김경민과 신창무 등 고참 선수들이 평소 말보다는 행동으로 많이 보여준다. 훈련 과정에서 제 짐을 많이 덜어주려고 노력한다”며 “오늘 경기는 팀이 준비한 것에 절반도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다음 경기인 전북전에서는 훈련한 것에 80%만 나와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도영 3타점 활약에도...한국, 대만에 4-5 패

월드베이스볼클래식 C조 3차전서 연장 끝에 무릎

한국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별리그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한국은 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대만과의 경기에서 10회 연장전 끝에 4-5로 패배했다.

앞서 체코에게 11-3 승, 일본에게 6-8 패배를 기록했던 한국은 이날 패배로 1승 2패를 기록, 9일 오후 7시 호주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갖는다.

이날 한국은 김도영(KIA 타이거즈·3루수)-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즈·좌익수)-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중견수)-안현민(kt 위즈·우익수)-문보경(LG 트윈스·지명타자)-케이 위트킵(휴스턴 애스트로스·1루수)-김주원(NC 다이노스·유격수)-박동원(LG·포수)-김해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2루수)으로 선발 타순을 구성했다. 선발투수는 류현진(한화이글스)이 나섰다.

선취점은 상대의 차지였다.

선투타자 장위정이 류현진의 2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이어 우넌팅을 삼진, 린안커를 땅볼, 지리리라를 다시 한번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아웃카운트를 모두 채웠다.

한국은 5회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선투타자 안현민이 불넷으로 출루했다. 후속타자 문보경은 중전 안타를 터트리면서 무사 1·3루가 됐다. 타석을 이어받은 위트킵은 병살타를 때렸으나, 그 사이 안현민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그러나 6회초 두 번째 투수 광빈(두산 베어스)가 첫 타자 정종저에게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맞았다.

리드를 내준 한국은 6회말 다시 분위기를 뒤집었다.

박동원의 불넷으로 만들어진 1사 1루 타석에 오른 김도영.

그는 상대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후 8회초 2사 2루에서 상대 페어차일드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때려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이 다시 활약하며 동점을 만들었다. 김해성이 불넷으로 출루한 뒤 1사 2루에서 김도영이 타석에 올라 1타점 적시타를 만들면서 경기는 4-4가 됐다.

양 팀은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10회초 무사 1·3루에서 상대 장군위의 번트로 결승점을 내졌다. 한국은 10회말 무사 2루에서 공격을 시작, 1사 3루의 동점 찬스를 잡았으나 김해성의 타구가 1루 땅볼로 잡히면서 홈으로 쇄도하던 김주원이 잡혔다.

결국 경기는 4-5 한국의 패배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C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대만의 경기. 6회말 1사 1루 한국 김도영이 역전 2점 홈런을 친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황윤미, 전국사이클대회서 금·은·동 싹쓸이

3·1절 기념 강진투어대회서 맹활약

전남 사이클 황윤미(전남체고 3년)가 전국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

황윤미는 최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제73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여고부 경기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먼저 여자 18세 이하부 개인도로2 경기에서 1시간19분59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도로1 결승에서 2시간18분5초로 은메달을, 크리테리움 경기에서는 25분14초를 기록해 동메달 추가했다.

그 결과 황윤미는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하며 전남 사이클의 차세대 간판 주자로서 가능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앞서 황윤미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유니폼 금메달과 3km 개인추발 동메달을, 개인도로단체(시범종목)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역시 첫 전국대회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힘



'제73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여고부 경기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휩쓴 황윤미(오른쪽 두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쓴 박한성 전남체고 지도자도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는 경거사를 누렸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며 전남 체육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망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전남 사이클을 비롯한 전남 체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시체육회,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사업비 확보

국비 4000만원...18개 등록스포츠클럽에 체육지도자 지원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지역 등록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순회지도 사업에 돌입한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의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65개 등록스포츠클럽 가운데 18개(동구1, 서구6, 남구3, 북구2, 광산구6)를 대상으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순회 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스포츠클럽은 지난 2022년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정해진 9가지 기준을 충족해 지자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선진형 스포츠클럽 제도이다.

등록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갈수록 지역 동호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클럽 등록 문의는 각 자치구청을 통해 가능하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체육지도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는 전문적인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등록스포츠클럽이 늘어나고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등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